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1회 목회자 세미나 수료식

한국 교회의 갱신과 영적 각성을 위한 계기 마련

우리 교회의 부설 기관인 한국 교회 성장연구원의 주관으로 지난해 2월 12일 개강한 제1회 목회자세미나가 내일(11월 26일) 종강함으로써 2년(6학기)의 모든 과정을 마친다.

목회자세미나는 개강 이후, 설교, 신학 교육, 선교 등 한국 교

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 복음화를 가속화시킬 KIMCHI 세미나의 모체가 되었다.

제1회 목회자세미나의 총 등

석자는 4천 54명(연인원 9천명)이며, 1학기때부터 6학기까지 모두 등록한 교역자들은 모두 2백 21명이다. 또 6학기에 걸쳐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여 수료하는 사람은 수료 대표자 김만금 목사(부산 동부교회)를 비롯한 백 13명이다.

교역자 새로 부임 부목사 4명, 여전도사 4명

91년도부터 교구가 증설됨에 따라, 교회는 여덟 분의 교역자를 청빙하고, 지난 23일 당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안경소 목사

(1957. 2. 10생, 33세)

- 현 서울 남교회 부목사
- 외국어대 이탈리아어 졸업(1984)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1987. M. Div.)
- 총신대학원 졸업 예정(1991. 2. Th. M.)
- 강도사 인허(1987)
- 목사 안수(1988)



김양흠 목사

(1958. 7. 25생, 32세)

- 현 안암제일교회 시무
- 총신대 졸업(1984)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1987. M. Div.)
- 강도사 인허(1987)
- 목사 안수(1988)



김찬곤 목사

(1958. 10. 12생, 32세)

- 현 부산 동부교회 부목사
- 고신대학 졸업(1985)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1988. M. Div.)
- 강도사 인허(1988)
- 목사 안수(1989)



이홍성 목사

(1958. 6. 9생, 32세)

- 현 삼일교회 담임(충남, 예산)
- 충남대 법학과 졸업(1982)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1989. M. Div.)
- 강도사 인허(1989)
- 목사 안수(1990)



백옥인 전도사

(1934. 8. 16생, 56세)

- 현 동산교회 전도사
- 평양사범 졸업(1950)
- 한국보육대학 졸업(1955)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 예정(1991. 2. M. Div.)



정인선 전도사

(1949. 9. 4생, 41세)

- 현 잠실 영문교회 전도사
- 예회예배 국문학과 졸업
- 합동선학교 신학과 졸업(1988. M. Div.)



최지혜 전도사

(1952. 4. 12생, 38세)

- 현 대구 동막교회 전도사
- 명지대 국문학과 졸업(1977)
- 대구신학교 졸업 예정(1991. 2. M. Div. 동등)



황정순 전도사

(1953. 3. 30생, 37세)

- 현 제일성도교회 성령 전도사
- 부산대학교 졸업(1977)
- 총신 신학연구원 졸업(1988. M. Div.)



심장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Y 집사님,

추위는 다가오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실 거처는 마련하셨는지요. 이백만 원 전세금으로 얻어 가신 집이 수재로 무너졌다니 걱정이 왜 안되셨겠습니까. 오십만 원이라도 있으면 월세집을 얻어 이사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마련할 수 없어 목사에게 편지를 쓰신 집사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같은 교구에 사시는 장로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재기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같이 막한 처지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내에 어찌 한 두 분이겠습니까. 목사로서 성도의 가정 형편과 영적 상태를 세밀히 알지 못한 것을 못내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교인이 많다는 핑계로 그리고 몇 집만 방문하는 것도 편애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발이 묶인 이 막한 목사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높은 나무 위에 혼자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못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 할 수만 있으면 찾아 가진 못해도 찾아오시는 성도님들과는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에 밀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울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북받치는 사랑이 나를 이대로 묶어 놓을 수만은 없지만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 다시 양보를 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곤고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집사님의 울음 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 것 같아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고비를 믿음으로 넘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25

이 종 윤 목사

김창인 원로목사

울산, 진주 지역 집회 인도

김창인 원로목사는 21일 광주 내려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방의 집회를 인도한 데 이어, 해성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며 민족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3일과 4일에도 진주 지방 연합하여 27과 28일에는 울산에서 말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씬을 증거하시고, 곧바로 진주로

살롬경로대학

22일에 제2회 수료식 가져



료식을 가졌다.

살롬경로대학은 9월 6일에 개강한 후, 노인들이 노년기에 오는 허탈감·무력감을 극복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생활해 나가도록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5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살롬경로대학에 지난 22일 오전 11시 갈릴리움에서 예종윤 위임목사, 아태구 장로들 비롯 많은 축하객들을 모시고 제2회 수료식과 함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양의 유산을 물려 줄 것을 다짐하였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폭풍전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10:40~42)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말씀입니다.

1. 요단강을 찾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요한복음 7장 1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해 거

하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요단강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과도 같은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안일을 취하거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이곳을 찾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42절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의 지명이 나

기도입니다. 만일에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으면, 아마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영력은 상실하고 말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가 덕스럽고 큰 교회는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초대 교회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설교를 하면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만 명이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교회가 큰 교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실을 다한다면 오히려 복된 역할을 더 많이 맡는 것입니다.

2. 위대한 증거자 세례 요한

41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면 천하를 얻어 낸 것이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 주지도 않는 나사렛 예수를 높이며 그가 흥하여야 한다고 외친 세례 요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를 바로 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알고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 알아서 잘못 믿어 가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고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공관복음서 전체를 연구해 봐도 자세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을 향해 대적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적장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 충돌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 이제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나고, 10장에 와서는 두 번적이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만한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셨다는 내용이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파해 나오시면서 요단으로 가셨을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다가도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고향을 그리워

오는데 그 이름은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은 ‘통행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변 베다니에 오신 것은 그곳이 바로 통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한적한 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가 매우 조용하고, 얼마 후에는 폭풍이 몰아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변 조용한 곳을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예루살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곳도 아니고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정은 예루살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실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 애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한가한 시간을 가져 자기를 검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자산 중의 하나는 새벽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요한이 요단강에서 기적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핵심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이 참이라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 가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증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단강변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지금 그 강변에 머지 않아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폭풍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태풍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용할 때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하여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바로 증거하므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임태주 전도사 : 사랑의 집 담당

장애인들과 받은 축복 나눈 초등3부, 중등부

초등3부 교사들은 지난 주일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고양군 벽제읍에 위치한 희망 맵아원을 방문했다.

이 맵아원은 어린이에서 노인 에 이르기까지 40여 명 정도의 맵인들이 모인 곳이다. 교사들은 국가나 특정 단체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회

망 맵아원을 찾아가 하나님께로부 터 받은 축복을 불우한 원생들과 함께 나누었다.

한편 21일에는 중등부 면려회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이 암사동에 위치한 정박아 수용 시설인 예담원을 방문하고 추수감사절에 학생들이 가져온 과일을 전달했다.

청년2부 반별 찬양대회 열어

청년2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소석관 514호에서 반별 찬양대회를 개최한다.

약 11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이 대회의 지정곡은 찬송가 542장, 자유곡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택일

하여 경연을 벌이게 된다.

이번 반별 찬양대회를 통해서 청년2부 회원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화목을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초등6부 18일에 찬양중창대회

초등6부는 지난 주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소석관 507호에서 찬양중창대회를 개최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 예선을 거쳐 7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쟁을 벌였다.

1등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

요"를 부른 팀이, 2등은 "내 증인이 되라"를 부른 팀이, 3등은 "내가 걸어갈 길"을 부른 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평소에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추수감사절을 찬양으로 예배드리고자 준비된 것이다.

인재를 찾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찬양대에서 자원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휘나 반주에 능숙하신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 사무국 행정과 : 소석관 102호)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 춘천소년원 방문

베드로전도회 제10지회는 매달 한 차례씩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한강고수부지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도의 열심을 품고 어제는 지도 목사인 김은태 목사를 모시고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였다. 회원들은 그곳에서 원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제11차 세례식 거행

지난 11월 21일 수요일, II부 예배 시간에 금년도 제11차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그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던 성도들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더욱 신실한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짐하였다.

대학부 가족 초청 잔치 은혜롭게 마쳐

대학부는 지난 11월 17일 "가족 초청 잔치"를 했다.

부모님과 선배님 등 여러 분들을 모시고 행해진 이번 행사에는 240여 명이 참석했다.

I부 예배에는 이종윤 목사가 "검소한 세례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II부 감사와 간증의 시간에는 오태희 장로 가족의 찬양과 이미리 부회장의 간증, 교사들의 찬양과 소그룹 특송이 있었고, III부 나눔과 교제의 시간에는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가졌다.

바라 보고 놀라고 둘러 보고 놀라게 한 교회

〈이 글은 얼마 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스에나미 유미코 씨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보내온 편지들을 정리한 것이다.〉

(전략)

한국의 총현교회를 둘러 보고 귀국한 지가 꽤 지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한국 열기"로 들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거리에 숲을 이룬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온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교회를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중략)

많은 교회를 돌아 본 중에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총현교회였습니다. 크리스찬신문에 아시안교대회를 개최하는 교회로 총현교회가 소개되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교회를 꼭 둘러 보고 싶다.'고 바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총현교회에 와서 교회 안의 여기저기를 둘러 보고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일행은 그저 감동하기만 하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떠들썩한 우리들이 총현교회에 가서는 비교적 조용해진 것은, 그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당, 교육관, 선교관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부 시설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4부로 드린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은 귀국한 후에도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의 아내들에게 그때의 감격을 밤이 새도록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일 아내들로부터 "너무 흥분해서 밤새도록 총현교회 이야기만 들려 주어서 한 잠도 자지 못했다."는 푸념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규모가 큰 것에도 압도되었지만, 장로님과 전도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본(총현암송성경)이라든지 아론의 지팡이 등에 관해서도 흥미 있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은 정말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장로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자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긍지를 가지면서 참으로 즐겁게 교회를 소개하는 그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총현교회가 이처럼 성장한 것이겠지요.

(후략)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대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호티라고 표현되는 이 접속사는 사건 진술의 내용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이는', '왜냐하면'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은 이 결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결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뜻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며, 기도의 힘도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2.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권세를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3.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질 문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계 4:11)?
2.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대상 29:11, 12)?
3. 우리는 언제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롬 11:36; 딤후 1:17)?
4. 나는 주기도문의 원리와 내용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 47 과 주기도문의 결론

성경 : 마 6 : 9~13

요절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 : 36)

찬송 : 9, 25

제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끝맺는 말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 주실 확신의 증표로써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설 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